

지역 소식통

완주군, 초록우산

의료비 지원사업 선정

완주군 드림스타트(군수 윤희태)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에서 진행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에 선정돼 아동이 고정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완주군에 따르면 의료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드림스타트 아동 1명이 선정됐고 고정 치료비 38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을 받게 된 아동의 어머니는 "아이가 밥 먹을 때마다 앞니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많이 불편해했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해 주지 못해 가슴이 아팠다"며 "늦기 전에 치료받을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백구미래연합

김장김치 60박스 기탁

김제시 백구면 소재의 사회단체 백구미래연합(대표 장성철)은 6일 겨울철을 맞아 백구면 행정복지센터(면장 김정곤)를 방문하여 김치 60박스(2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백구미래연합은 백구면의 지역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단체로 해마다 취약계층을 위한 송편 나눔, 이웃돕기 성금 기탁 등 이웃들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며 이웃사랑에 앞장서고 있다.

장성철 대표는 "백구미래연합은 더불어 사는 백구면을 조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회원들이 정성스럽게 김치를 직접 담가 미처 유통 준비를 하지 못한 소외계층들과 함께 하고자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정곤 백구면장은 "이번에도 잊지 않고 찾아 주신 백구미래연합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덕분에 어려운 이웃들이 든든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면서 회원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시민과 혼신의 대장정 이어갈 것”

정성주 김제시장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



정성주 김제시장은 6일 본회의장에서 김제시의 각종 현안에 대한 이병철 의원, 최승선 의원, 황배연 의원, 전수관 의원 등 4명의 의원에 대한 시정질문에 답변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6일 본회의장에서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한 이병철 의원, 최승선 의원, 황배연 의원, 전수관 의원 등 4명의 의원에 대한 시정질문에 답변했다.

먼저 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 3고 현상의 지속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더해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까지 겹친 대외경제 불안과 국제 곡소 여파로 지방재정 확보 여건은 더욱 어려워진 가운데 2023년 김제시 최초 국가예산 1조원 시대의 개막과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투자지구 지정 사업에 지정산업단지 내 (주)HR E&I와 (주)두산이 선정되어 첨단산업의 투자 촉진과 집적화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첨단 나노소재 기업인 (주)석경에이티, 배터리 제조업체 (주)알파온 등 미래 성장기업을 유치하여 총 738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66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또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 끊임 없는 논의와 협치를 통해 더 특별한 김제 상공시대 개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처음 질문에 나선 이병철 의원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관할권 분쟁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지연과는 별개이며 정치권과 적극 공조하여 유래했던 새만금 SOC 삭감 예산의 예산복원 등을 통해 각종 새만금 개발사업이 당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광역 사무 도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 ODA 관련 질문에 대해 "김제시는 대한민국 농생명 수도이자 과학기술을 접목한 농업 분야 최고 중심도시로서 최첨단 선진농업의 교육 인프라가 갖추어진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개발도상국의 공무원

과 농촌지도자 연수 등의 프로그램이 ODA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전북도 및 FAO 세계농업대학 유치 전략을 수립한 전북연구원 등과 적극 협업하여 정부에 세계농업대학 유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역개발혁신과 지역대학 협력과 관련하여서는 "폐교된 남원 서남대를 모델로 금번에 선정된 전북대학교의 글로벌대학30 사업의 경우처럼 원광대 등 인근 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가 공모에 대응하고, 필요시 부지 활용 방안 용역 추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적인 민원 행정 서비스에 관해서는, "긴 처리 기간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법정 복합민원의 개선을 위해 부시장 주관하에 매월 원스톱 민원 처리 종합 보고회를 개최하여 처리 기한을 단축하고 민원 처리 실태 사후관리 강화로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수관 의원의 지역산업 특화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제안과 관련하여서는 "교육정책 전반에 김제교육지원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교육부의 세부 계획이 발표되면 교육청과 특성화고 지정 희망학교, 관련 기업 등과 논의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스 확대를 위한 전담팀 도입에 대해 향후 조직개편 추진 시 다양한 의견수렴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음 황배연 의원의 지방시대의 종합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정부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발표됨과 동시에 김제시는 분야별 중점과제 대응 체계를 신속히 구축했고, 진행 중인 전라북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김제시 주요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혁신적인 민원 행정 서비스에 관해서는, "긴 처리 기간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법정 복합민원의 개선을 위해 부시장 주관하에 매월 원스톱 민원 처리 종합 보고회를 개최하여 처리 기한을 단축하고 민원 처리 실태 사후관리 강화로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수관 의원의 지역산업 특화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제안과 관련하여서는 "교육정책 전반에 김제교육지원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교육부의 세부 계획이 발표되면 교육청과 특성화고 지정 희망학교, 관련 기업 등과 논의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지평선중학교,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실시

김제시 지평선중학교(교장 조명규)은 6일, 성덕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윤인석)와 연계해 난방 취약계층에 사랑의 연탄 500장(60만원 상당) 나눔 봉사활동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봉사활동은 지평선중학교

학생회 주축로 자체자치회를 열어 수익금 일부를 사용해 연탄을 마련했으며, 교직원과 학생 20여명이 참여해 온정의 손길로 연탄을 직접 전달해 줌으로써 더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윤인석 성덕면장은 "추워진 날씨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고고를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이번 연탄 나눔으로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평선중학교 사랑의 연탄나눔은 2005년부터 매년 이어오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황산면 주민자치위원회는 6일 김효숙 황산면장과 주민자치위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 ♥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황산면 주민자치위, 사랑 ♥ 나눔 행사

마늘고추장담그기 등 특색사업

김제시 황산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구종식)는 6일 김효숙 황산면장과 주민자치위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황산면 주민자치 기능강화 특색사업 추진에 따른 사랑 ♥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마늘과 고춧가루를 가지고 정성껏 만든 마늘고추장 300여개와 또 하나의 특색사업인 콩 재배 사업을 통해 수확한 콩으로 두부(100kg)를 만들어 나누고 판매 행사를 가졌다.

구종식 주민자치위원장은 "매년 마늘고추장 나눔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과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주민자치위원들의 역

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효숙 황산면장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앞장서는 주민자치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기회가 되었길 바라며 더 큰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어 지역사회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산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마늘고추장을 직접 담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매년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직접 재배한 콩으로 두부를 만들고 지역농산물을 판매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전원마을 조성 지원 강화

5호 이상만 태도 기반시설 지원... 최고 4000만원까지

완주군이 인구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전원마을 조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6일 완주군은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이 마무리 단계로 이듬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10호 이상의 전원마을만 기반시설을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5호 이상만 태도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삼례·봉동·용진·이서 중앙생활권은 호당 2,000만원 이내, 상관·소양·구이 남부생활권은 호당 3,000만원 이내,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북부생활권은 호당 4,00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다만, 기반 시설에 포함되는 도로 부

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 이후 군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신규 전원마을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며, 완주군 전원마을 조성 지원 심의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이외에도 군은 전원마을 조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원 TF팀을 구성해 사전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복합민원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있다.

강명완 지역협력과장은 "완주군은 도농복합도시로 뛰어난 자연경관과 도심의 편리함까지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주거지다"며 "행정 절차를 빠르게 이행해 내년 초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